

불교교학, 한반도서 꽃을 피우다



김용래 교수의 한국불교 도픽 36選

5. 삼국, 학파불교의 전성기

불교의 수용은 단순히 화려하고 영험한 불상과 의상이 전래되고 사찰을 통해 기복적인 신앙이 퍼져나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불교 수용이란 불·법·승의 삼장이 온전히 갖추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전과 율장, 논서가 들어오고 승려와 교단이 성립되어 교리와 계율, 즉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의 규율이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불교 수용도 마찬가지로 불상, 경전이 전래된 후 계를 지키는 승려가 나오고 교단이 성립됨과 함께 교학에 대한 이해의 진전이 수반되었다. 삼국 중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고구려는 교학에 대한 이해 수준 또한 높았을 테지만, 아쉽게도 단편적 기록 외에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문헌 자료가 전해지지 않는다. 다만 승려 이름, 그리고 활동내용이나 사상적 특색이 일부 전하는 고구려 출신 승려들을 소개해 본다.

고구려 승려 가운데 교학 이해에서 가장 이름난 이는 승랑이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활동한 승랑은 중관사상에 정통하였고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후대 삼론종 성립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30세 때 중국에 건너가 구마라집의 제자 승조 계통의 삼론학을 수학하였고 평생 삼론을 연찬하여 삼론종의 개조 길장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승랑의 저술은 현존하지 않지만 길장의 저술이나 현존하는 삼론학 문헌에서 그의 논설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대체적 윤곽이 확인된다.

또 다른 고구려 출신 삼론학자인 혜관은 중국 수나라에서 길장에게 직접 배운 후 625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삼론종을 개창하였다. 혜관은 큰 가름이 들자 기우제를 지내 비가 오게 하는 신이함을 선보였고 그 결과 일본불교의 2대 승정이 되었다. 승랑이나 혜관의 국제적 활약상과 위상을 놓고 볼 때 고구려의 삼론학 수준 또한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론학은 나가르주나를 필두로 한 인도 중관학파의 <중론>, <백론>, <십이문론>의 세 논서에 의거한 학문이다. 중국에서도 공관의 이해와 함께 중관사상이 매우 중시되었는데, 삼론학은 길장에 의해 삼론종으로 발전하였다.

길장은 빈야장관과 불성을 함께 터득하는 중도의 체득을 강조하였다. 공관은 자아와 같은 영속적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현상존재의 인과적 관계인 연기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불성은 부처의 성품을 중생이 본래부터 구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하지만 길장은 공(空)과 유(有), 진제와 속제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고 이를 중도의 관점에서 통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의 학설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초목성불설로서 그는 성불이 가능한 존재에 유정물인 식물까지 포함시켜 대상의 폭을 넓혔다.

고구려에서는 이밖에도 열반학의 보덕, 천태학의 파약(반야) 등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보덕은 <열반경> 40권을 강의하는 등 열반학에 심취한 이였고 선관 수행을 하다가 신인의 영험함에 감응하여 영탑사를 세웠다는 기록도 전한다.

보덕은 고구려 보장왕이 당 황실에서 미는 도교를 신봉하게 되면서 불교를 숭상하지 않자 장차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보고 이를 간언하였다. 하지만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650년에 방장을 날려 하룻밤 사이에 백제의 완산주로 옮겨가서 경복사를 세우고 머물렀다고 한다. 원효와 의상이 그의 <열반경> 강의를 직접 가서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에서도 그의 열반학 이해 수준과 당시 그의 지명도가 매우 높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 출신 파약은 중국에 가서 천태종의 개창자 천태지에게 수학하여 천태의 교관을 전수받았다고 전하며 신이함으로도 유명해 중국의 고승전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고구려 출신 승려 중 일반에 가장 잘 알려진 이는 일본 나라현 호류지(법류사)의 금당벽화를 그린 당

삼국 모두 불교학 빠르게 발전해

고구려, 삼론·중론·열반학 등 융성

백제, 천태계통 법화삼매수행 유행

신라는 원광·자장이 교학체계 정립

뛰어난 학승들 일본불교에도 큰 영향

정일 것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그는 610년 백제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채색과 종이, 먹 등의 제작 기술을 전하였고 호류지에 기거하면서 금당벽화를 그렸다고 한다.

동양의 3대 미술품으로 손꼽히는 금당벽화는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의 4불로 구성된 정토도로서 1949년 수리 중에 불의 화재로 아쉽게 불에 타고 말았다. 하지만 1989년에 호류지 5층탑의 벽화 덧그림 아래에서 그가 그렸다고 하는 관음보살상이 1300년 만에 발견되어 빛을 보았다.

이처럼 담징은 화가와 전문가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는 योग과 불법을 강론하는 등 한반도의 선진문화와 학문을 일본에 소개한 이였다. 여러 기록들에서 신라와 일본의 승려들이 고구려에 불교를 배우기 위해 유학한 사례가 보이는 등, 당시 고구려는 동아시아 불교학의 선진국이였음이 틀림없다.

백제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교학의 이해와 불교 문화의 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백제 불교도 6세기 이후의 자료만 일부 전해지고 있어 그 전체상을 복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왕 때인 541년에 백제는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서 <열반경> 등의 불전과 주석서를 들여왔고 많은 유학승을 중국에 보내 당시 유행하던 성실학, 열반학 등을 공부하게 하였다.

성실학은 하리발마가 쓴 <성실론>에 의거한 학문으로 부파불교의 교리를 중심으로 대승사상 연구를



국보 제84호 서산 마애삼존불상. 석가모니불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이 배치되어 있다. 교학의 발전은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산 마애삼존불에 배치된 불상으로 백제 시대 <법화경>의 신앙 형태가 발전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위한 토대를 닦는 것이었다. 열반학은 부처 최후의 설법으로 전해지는 <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며 부처의 몸(불신)의 영원성과 모든 중생의 성불 가능성을 제기하여 동아시아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철저한 긍정과 무한한 깨달음의 가능성을 던진 것으로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는 불성 논의가 불교계와 사상계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였다.

백제에는 또한 천태 계통의 법화삼매행법도 들어왔는데, 이는 <법화경>을 독송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실상중도의 이치를 관상하는 수행법이었다.

이와 함께 중국 북조에서 크게 유행하던 지론학이 수용되었다. 지론학은 바스반도의 <십지경론>을 중심으로 한 유식사상에 근거를 둔 학문이다. 지론학파는 유식의 제8식 알라야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등을 놓고 남도파와 북도파로 나뉘었다.

남도파는 알라야식을 진식과 망식으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진식을 여래장으로 보고 긍정하였다. 북도파는 알라야식을 오로지 망식으로 파악하고 진여는 이와 별개라고 보았으며, 여래장 불성 사상을 사실상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의 논쟁은 결국 남도파의 승리로 귀착되었고, 이는 누구에게나 성불의 가능성이 있다는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기본 전제를 형성하였다.

불교의 중국적 전개를 상징하는 대표논서인 <대승기신론>에서는 일심을 불변의 진여와 현상이나 인연

에 따라 부처하는 생멸로 나누어 구조화하였는데, 이는 유식사상과 여래장사상의 결합으로서 알라야식은 여래장과 무명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된다.

한편 7세기 전반의 무당대에는 중국에서 성행하던 삼론학이 백제에 전해졌고 삼론학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쳤다. 삼론학은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에서도 주류사상으로 자리 잡아 발전하였는데, 일본불교의 기반을 닦은 쇼토쿠 태자가 스승으로 모셨던 혜총과 일본의 초대 승정 관록도 백제 출신 삼론학승이었다. 이와 함께 백제에서는 계율학이 매우 중시되었는데, 6세기 전반 경이 인도에서 율장을 가지고 왔고 이를 한역하였다는 기록이 아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소개되어 있다. 이후 계율학과 관련된 주석서가 백제에서 나왔고, <사분율> 등의 율장에 입각한 구체적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 584년에 일본의 비구니 승려들이 정식 수계를 위해 백제에 왔다 갔을 정도로 백제의 계율학과 수계의식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 중에서 불교의 공인이 가장 늦었던 신라는 불·법·승의 삼보가 공식 전래된 것도 기록상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후대인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에 이루어졌다. 먼저 '불(佛)'은 각국이 중국 양나라에 유학한 후 549년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귀국했다고 전해며, '법(法)'은 명관이 진에서 공부한 뒤 565년에 불경 1,700여권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전래되었다. '승(僧)'의 경우는 지명이 수나라에 유학하

고 602년에 돌아와 율장과 관련된 <사분율갈마기>를 저술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뒤늦게 출발한 신라에서 불교 교학이 본격적으로 이해되고 연찬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전반 원광과 자장 때에 들어서이다. 원광은 중국 유학 후 진명왕의 명에 의해 수에 원관을 청하는 '걸사표'를 짓는 등 정치·교적 자문에 응하였고 화랑인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를 권장한 일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그는 교학에 정통하여 수나라에 유학하여 당시 유행하던 성실학과 삼론학 등을 배웠다.

삼론학은 아상가의 <섭대승론>에 근거한 것으로 지론학 남도파와 유사한 입장에 서있다. 삼론학에서는 알라야식을 진과 망의 화합식으로 보았고 그 본체를 순수 진식인 '아말라식(=여래장)'으로 상정하였다. 이처럼 알라야식, 또는 일심을 진식과 망식, 진여와 생멸의 이중구조와 양자의 공존으로 보는 시각은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주류적 경향이였다.

원광에 이어 중국의 선진 불교교학을 수용하고 소개한 자장은 당에 유학하여 계율학과 삼론학을 수학하였다. 그는 643년에 장경 1부를 가지고 귀국하였는데 교단을 통솔하는 대국통이 되면서 앞서 수나라 불교를 불모델로 삼아 교단의 체제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때 황룡사를 중심 사찰로 하여 불교 교단을 5부로 조직하였고 감찰기구를 두어 지방 사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장은 계율을 정비하여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고,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분율> 수계와 재가자를 대상으로 한 <보살계본>의 강의와 보살계 수계를 동시에 행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남방 상좌부 전통과는 달리 소승율과 대승보살계가 전해져 함께 중시되었고, 출가자와 재가자를 포괄하는 <법망경>이라는 중국 찬술 경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자장은 나아가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설치하여 수계의식을 정비하였고 황룡사 9층 목탑에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등 국가의 후원 속에서 교단체제의 완성을 꾀하였다. 중국에서 계율학은 남산율종의 개조로 알려진 도선에 의해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계율의 정비와 수계는 불교 교단의 형성 및 유지와 정식 승려의 배출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였다.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를 거치며 경전과 논서의 한역이 거의 이루어지고 불교교리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지론학, 삼론학 등 여러 학파가 성립되고 학파불교의 전성기가 도래하였다. 이는 삼국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불교 교리와 사조가 들어왔고 교학에 대한 이해가 점차 확산되었다.

한편 7세기 이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특정 경전이나 교학에 의거한 교종 종파가 성립되었다. 중국의 수·당대는 바로 종파불교의 융성기로서 대표적 종파로는 삼론종, 천태종, 화엄종, 법상종을 들 수 있다. 신라에서도 7세기 중반 삼국통일 이후에는 화엄, 유식 등 주요 불교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주석서들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에도 조금 늦은 8세기 무렵의 나라시대에 불교교학에 대한 본격적 이해가 이루어져 남도 6종으로 대표되는 학파 및 종파불교가 성립되었다. 남도 6종은 성실종, 구사종, 삼론종, 법상종, 화엄종, 율종으로 중국과 신라를 거쳐 한 불교사상의 기원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진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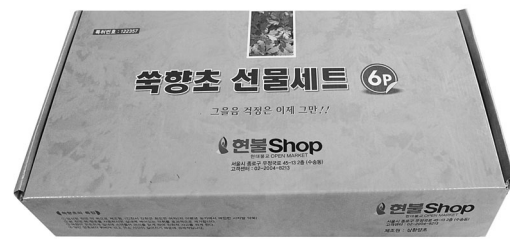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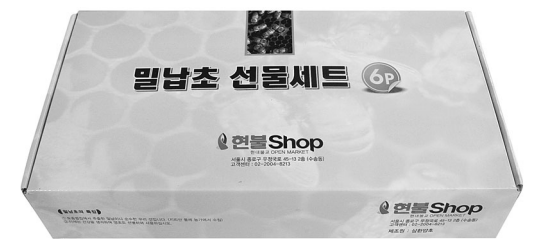
쑥양초 세트 · 밀납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쪽양초는 그윽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잠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 지름 6cm



지리산 토종 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격 : 30,000원
· 크기 : 높이 18cm × 지름 6cm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